

농구&

10

2018년 9월 19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김세영, 6계단 경총 여자골프 랭킹 13위

박성현, 5주 연속 1위 지켜



김세영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마지막 메이저대회에서 아쉬운 준우승을 거뒀던 김세영(25·미래에셋)이 세계랭킹 도약으로 위안을 삼았다.

김세영은 18일(한국시간) 발표된 여자골프 세계랭킹에서 기존 19위보다 6계단 오른 13위를 차지했다. 직전 프랑스에서 막을 내린 에비앙 챔피언십이 반영된 결과다. 김세영은 이 대회에서 공동 준우승을 차지했다. 에이미 울슨(26), 안젤라 스탠포드(41·이상 미국) 등과 끈질긴 선두 경쟁을 벌였지만, 후반 샷 난조에 빠지면서 생애 첫 메이저 타이틀 획득에 실패했다.

한편 박성현(25·KKB하나은행)은 5주 연속 세계랭킹 왕좌를 지켰다. 지난달 끝난 인디 위민 인 테크 챔피언십에서 올 시즌 3승째를 거두며 세계랭킹 1위로 올라섰던 박성현은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하며 부진했지만 2위 아리아 주타누간(23·태국) 역시 36위에 그치면서 선두자리를 유지하게 됐다.

기존 3위와 4위에 올라있던 유소연(28·메디힐)과 박인비(30·KB금융그룹)는 각자 자리를 맞바꿨고, 김인경(30·한화큐셀)은 10위 자리를 그대로 지켜 총 4명의 태극낭자들이 톱10에 이름을 올렸다.

고봉준 기자 shutout@donga.com



최용석의 팀인 | 무능·무책임·무대책...대한농구협회는 '3無 협회'

대표팀 경기에 코칭스태프 달랑 1명이라니...

〈김상식 감독대행〉

허재 감독·강화위원 사임에도 무대책 예산 부족 대행사 교체...홍보 손 놓아 KBL·WKBL에 대우 없이 지원 요청만 통일농구에 취한 협회...정신 차릴 때

한국 남자농구대표팀은 17일 고양체육관에서 시리아와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예선 2라운드 2차전을 치렀다. 김상식(50) 코치가 감독대행을 맡았고, 103-66으로 완승을 거뒀다. 6승2패(승점14)를 마친 한국은 레바논과 동률을 이뤘지만 농구월드컵 본선 직행이 가능한 조 3위를 유지했다. 경기 내용은 나무랄 곳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외 나머지 부분은 모두 엉망이었다.

한국의 코칭스태프는 김상식 감독대행 1명이었다. 경기가 임박한 시점에 강화위원 전원사임에 이어 허재(53) 감독의 사의 표명 등 내용을 겪은 후 대한농구협회(회장 방영)는 무대책이었다. 허 감독의 사임 직후 김 코치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언론에 대행체제를 발표했다. 또한 지난 14일 요르단 원정으로 펼쳐진 예선 2라운드 1차전에는 선수단만 파견했다. 협회 고위관계자는 아무도 없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전임감독제를 실시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 대표팀을 운영하겠다고 협회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그 뿐이 아니다. 한국-시리아전 관중은 1279명에 불과했다. 농구관계자와 선수들 제외하면 순수 관중은 1000명이 남짓 밖에 되지 않았다. 평일이지만 A매치라는 점을



한국과 시리아의 2019 국제농구연맹(FIBA) 월드컵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 2라운드 경기가 열린 17일 고양체육관에는 1279명의 관중만이 입장했다. 대한농구협회의 홍보부족으로 경기는 무관심 속에 치러졌다. 협회는 내실을 다지는 데에는 소홀하면서 안하무인적 행보를 이어가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고양 | 뉴시스

감안하면 매우 실망스러운 수치다. 남자농구대표팀이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an게임에서 기대만큼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탓도 있지만 협회의 준비도 많이 부족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숨어있었다. 시리아전을 앞두고 A매치를 진행할 대행업체가 교체됐다. 이전까지는 협회 마케팅대행사가 지정한 하청업체가 A매치 경기운영 전반을 담당했다. 그런데 비용이

너무 비쌌다. 한 경기당 대략 1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산이 부족한 협회는 시리아전을 앞두고 경기를 운영할 업체를 바꿨다. 고양을 연고지로 하는 프로팀 고양 오리온의 이벤트 대행사에게 부탁해 경기를 소화했다. 비용은 이전에 비해 30%밖에 들지 않았지만, 관중수는 턱없이 줄었다. 한 농구관계자는 "협회는 정작 돈을 쓸 곳에는 쓰지 않고 엉뚱한 데다 돈을 쓰고 매번 예산부족을 호소한

유럽·남미와 맞서는 한국유도, 파위를 극복하라

내일부터 세계선수권 강자와 자웅
혼성단체전엔 첫 남북단일팀 구성

2018자카르타-팔렘방아시아an게임(AG)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낸 한국유도대표팀의 올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일(한국시간)부터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국제유도연맹(IJF)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또 한 번 세계적인 선수들과 자웅을 겨뤄야 한다. AG에서 일본 특유의 기술유도에

맞섰던 대표팀의 새로운 과제는 유럽과 남미의 파위를 이겨내는 것이다. 2020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완전체 전력을 구축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대표팀은 16일 바쿠로 출국 후 현지 적응 훈련에 한창이다. AG 남자 66kg급 금메달리스트 안바울(남양주시청)을 비롯한 18명의 선수가 필승의 각오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 남자 100kg 이상급에 나서는 고교생 김민종(보성고)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데, 유럽과 남미 선수들이 특



안바울

하는 중량급에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바울과 안창림(남양주시청·남자 73kg)의 체급에는 일본 최강자로 손꼽히는 아베 히후미와 하시모토 소이치도 출전한다. 안창림과 AG 결승에서 맞대결했던 오노 쇼헤이(일본)는 이번 대회에 나서지 않지만, 하시모토와 루스탐 오르조프(아제르바이잔) 등 강호들이 대거 출격해 쉽지 않은 승부가 예상된다. 남자 90kg급에서 100kg급으로 체급을 올리고 세계랭킹 1위에 오른 바를람 리파

르텔리아니(조지아) 등 피지컬이 뛰어난 선수들과 승부도 기대된다.

대회 마지막 날(27일) 열리는 혼성단체전 예선 유도 역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한다. 양 국가의 지도자들은 현지에서 회의를 통해 출전 체급과 선수구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또한 북측 지도자 명단에는 1996애틀랜타올림픽 여자 48kg급 우승자로 잘 알려진 계순희가 이름을 올렸다. 북측은 남자 60·73kg급과 여자 52·57·70kg급에 총 7명(남3·여4)의 선수를 내보낸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편집 | 김태건 기자 bong82@donga.com

가스용품 리콜 공표

한국가스텍에서 제조한 다음 제품에 대하여 부족품(거버너)의 안전장치 작동이 불량하여 리콜을 실시하는 바입니다.

품명 : 부탄가스용 연소기
모델명 : HK-211B
제조년월일 및 제조번호 : 20151111~20160607
회수업체 : (주)한국지이

위의 내용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시거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주시면 당사에서 현장방문, 점검 후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EL : 02-862-5055

신문광고 대행 및 무료제작

종합광고대행사 애드뉴는 조, 중, 동, 매 주요 일간지와 스포츠신문에 기사식 광고를 제작,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광고 대행이 아닌 매체의 분석과 광고주의 특성에 맞춘 광고 제작을 바탕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닌 광고주의 성공을 제1의 원칙으로 여기기에 단 한 줄의 광고 문구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며 생각하고 생각해 최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광고 대행 계약 시 모든 광고 제작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광고문의 010-8942-4233

자연곡물 구운과자 생산조합원 모집

본사 공장, 집, 개인 매장 등에서 만들어 본사 납품, 납품계약 2년
월 500만원 이상 수익, 기계 보증금 700만원, 계약 종료후 전액 환불



생산 사업자는 생산만!

생산제품 전량 본사 납품

직접 일안하고 직언싸도 높은 수익



기계 15대로 월 3만6,000 박스 납품, 월 2,800만원 이상 수익
생산인원 5명(인건비 1인당 250만원, 합 1,250만원) 순수익 1,630만원 이상



기계 3대로 월 9,000박스 납품, 월 700만원 이상 수익



기계 1대로 월 3,000박스 납품, 월 250만원 이상 수익

◆계약 해지시 보증금 환불, 파격조건

(주)자연곡물은 최근 파격적인 창업 시스템으로 1인 생산 사업자(조합원)를 모집 중이다. 한 마디로 말해 절대 망할 일 없는 사업방식이다. 생산 사업자는 본사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한 모든 제품을 본사에 100% 납품하면 된다. 생산 공간 및 시설 걱정이 없고 생산한 제품의 판로 걱정도 없다. 본사는 높은 임금으로 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고 생산 사업자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장 받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원형 전략이다.

◆보증금 전액 24개월 카드 분납가능

자연곡물 구운과자 사업은 기계 1대당 보증금 700만원이면 누구나 사업이 가능하다. 계약 종료후 돌려받을 수 있고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계약을 하게되면 기계, 재료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일체를 제공한다. 생산 교육도 시켜준다. 굳이 현금이 없어도 얼마든지 사업이 가능하다. 본사에서 보증금 전액 24개월 카드 분납이 가능하고 창업자금 대출도 지원한다.

◆상황에 맞게 맞춤형 사업

이 사업은 기계 1대부터 15대까지 자신의 역량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사는 생산 사업자가 만든 구운곡물 과자 1박스당 800원의 생산비를 지급한다. 수도, 전기료, 임대료 등 모든 비용이 무료이기 때문에 순수 마진이 800원이다. 기계 1대로 시간당 8박스 생산이 가능해 기계 3대로 하루 10시간 기준 19만2000원의 기본 수익이 발생한다. 24시간 운

영시 수익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기계 3대로 24시간 운영할 경우 월 1380만원 이상의 수익일 발생하고 직원 월급을 주더라도 월 1000만원 이상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직원 채용에서 관리까지 본사가 다 해주기 때문에 사업자는 출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1인 기계 3대 운영이 가장 효율적이지만 기계 1대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이별 경우 위임사업 하면서 월 250만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월 기계 사용료는 1대 20만원, 2대 35만원, 3대 45만원이다. 기계보증금은 사업 종료후 모두 돌려받기 때문에 사업자는 1원도 손해 볼 일이 없다.

◆해설(HACCP) 인증 공장에서 생산

(주)자연곡물 구운과자 사업은 식품제조허가증 가진 본사의 공장에 출근하며 생산만 열심히 하면 되는 간단한 사업이다. 최근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열망이 강해 과자 하나라도 신경쓰는 추세다. 그에 발맞춰 개발된 자연곡물 건강과자는 현재 수요가 폭발적으로 생산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독성이 강해 한 번 봉지를 뜯으면 다 먹을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재 귀리현미 누룽지형 과자, 검은깨 현미 누룽지형 과자 등 제품도 다양하다.

www.naturegrain.kr

NAVER 자연곡물구운과자 검색

본사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1-1

전국 어디든 제품 샘플을 가지고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24시간 문의 : 032-229-2000